고용·노동브리프 제93호(2019-08)

KLI EMPLOYMENT & LABOR BRIEF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홍보전략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22
FAX 044-287-6029

발행일 2019년 12월 13일

201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0년 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19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6천 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60.9%, 실업률은 0.1%p 감소한 3.9%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용 증가폭이 작았던 기저효과, 지난해에 비해 커진 인구 증가,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일부 서비스업 고용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30~50대 고용이 남성 중심으로 여전히 둔화 흐름에 있고 단시간 근로 위주의 고용 증가가 나타난 점은 올해 노동시장을 양적으로 평가할 때 한계로 남는다. 국내외 여러 전망 기관들이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는 소폭 나아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으나, 본격화될 15~64세 인구 감소 및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둔화의 영향으로 고용의 총량적 증가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2020년 취업자는 2019년보다 적은 207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 2019년 노동시장 개관

2019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6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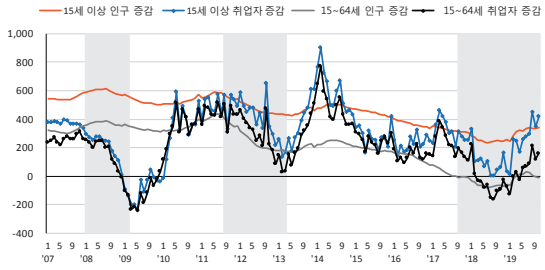
2019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6천 명 증가해 2018년 동기간(97천 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15~29세 36천 명 증가), 여성(197천 명 증가) 및 고령층(60세 이상 417천 명 증가)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했다.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개선이 나타났으나,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30~50대 남성의 고용둔화(고용률 0.3%p 감소, 여성 0.6%p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10월 평균 실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7천 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0.1%p 감소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조기 확대시행과 공무원 시험일정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 동기간보다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2019년 상반기 66천 명 증가), 8월 이후 실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8월 275천 명, 9월 140천 명, 10월 108천 명 감소) 1~10월 평균 실업자가 감소하였다.

2019년 1~10월 평균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48천 명 증가하면서 2018년 동기간 10만 명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반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인구 증감 추이 (15세 이상 및 15~64세)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7년 1~10월	2018년 1~10월	2019년 1~10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	43,907 (328)	44,159 (252)	44,476 (317)
	경제활동인구 (증감)	27,757 (337)	27,907 (150)	28,176 (269)
	취업자 (증가율) (증감) (남성) (여성)	26,708 (1.2) (328) (137) (191)	26,804 (0.4) (97) (3) (94)	27,080 (1.0) (276) (79) (197)
	고용률 (남성) (여성)	60.8 (71.2) (50.8)	60.7 (70.9) (50.9)	60.9 (70.6) (51.5)
	실업자	1,049	1,103	1,095
	실업률 (남성) (여성)	3.8 (3.9) (3.6)	4.0 (4.0) (3.9)	3.9 (4.0) (3.7)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6,150 (-9)	16,252 (102)	16,300 (48)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	36,862 (27)	36,798 (-64)	36,798 (-0)
	고용률 (남성) (여성)	66.6 (76.2) (56.8)	66.6 (75.9) (57.1)	66.7 (75.6) (57.7)
	취업자 (증감)	24,548 (237)	24,501 (-48)	24,560 (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세 미만의 남성을 중심으로 '쉬었음' 증가

졸업생 중심으로 20대 제조업 취업자 감소 지속

대로 '육아 및 가사'가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 축소로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15~24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 연령층이 청년을 넘어 확대되고(평균연령 2018년 28.5세에서 2019년 29세), '쉬었음'도 60세 미만 남성 증가폭이 커져(115천 명 증가) 경기둔화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II.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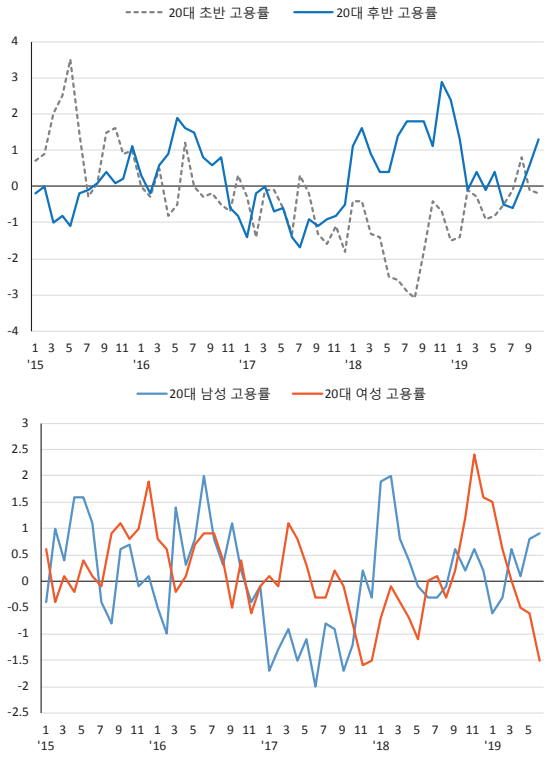
1. 재학생 중심의 20대 고용률 증가

2019년 1~10월 평균 20대 고용률은 58.1%로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하여 2018년 동기간 0.1%p 증가한 것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상태별로 20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자는 36천 명 증가하고, 졸업생(중퇴 포함) 취업자는 8천 명 증가하여 재학생 중심으로 20대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재학생은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증가하였으며, 주로 15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가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에서는 증가했으나,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그래도 9, 10월 들어 대학 이상 졸업생은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2] 20대 고용률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30~50대 남성 고용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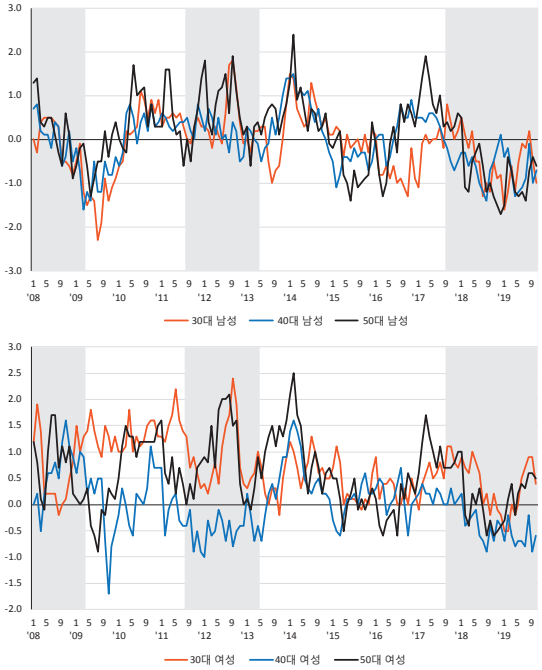
40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둔화 지속

40대의 경우, 고용률이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하면서 고용둔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남성 취업자는 업종별로 제조업(32천 명 감소), 건설업(29천 명 감소), 공공행정(26천 명 감소)에서 감소로 고용률이 0.8%p 감소했다. 40대 여성 고용률은 0.5%p 감소했는데, 업종별로 제조업(31천 명 감소), 도소매업(24천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22천 명 감소)에서 감소하고 있다.

30대 남성은 도소매업(26천 명), 공공행정(24천 명), 사업시설관리, 지원 및 임대업(12천 명)에서, 50대 남성은 도소매업(16천 명), 건설업(8천 명)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고용률이 각각 0.6%p, 0.9%p 감소했다. 30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는 미혼(0.8%p 감소)보다 기혼(1.5%p 증가)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50대 여성 취업자(96천 명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0천 명 증가), 교육서비스업(15천 명 증가)에서 주로 증가했다.

[그림 3] 30, 40, 50대 남성 고용률 증감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주 : 음영은 경기수축기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60세 이상 고용률 증가폭 확대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30~50대 남성 고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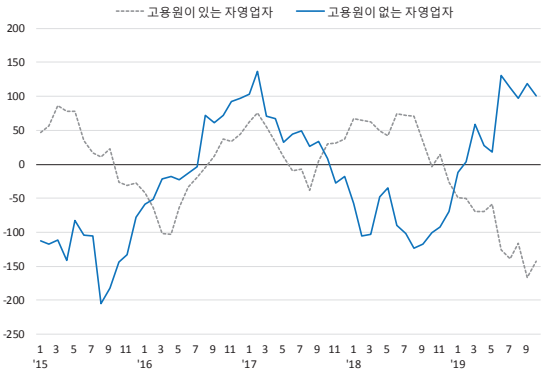
2019년 1~10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41.4%로 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하여 2018년 동기간 0.2%p 증가보다 확대된 모습이다.

65세 이상 연령대 취업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조기 확대시행으로 연초 높은 고용률 증가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79천 명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행정에서 42천 명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0천 명 증가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상당함을 보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 증가

[그림 4]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상반기에 이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임시직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서 크게 감소했다. 일용직은 최근 건설업에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 14천 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임시·일용직 감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근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10월 평균 99천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도소매업에서 최근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한 해 증가하고 한 해 감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동기간 66천 명 증가했다. 전년도에 큰 감소를 보였던 도소매업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증가로 전환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경기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증가도 비슷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5. 단시간 근로자 위주 고용 증가 지속

52시간 상한제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장시간 근로자 감소

주 45시간(실제 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볼 때 경기둔화기에 대체로 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 52시간 상한제의 영향뿐 아니라,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전인 2017년 하반기부터 이미 장시간 근로 증가폭이 줄고 있어 경기적 요인 영향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

〈표 2〉 실제 취업시간별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증감)

		15시간 미만	15~35 시간	36~44 시간	45~52 시간	53시간 이상
전 체		204	298	448	-149	-473
성별	남성	70	84	332	-40	-332
	여성	135	214	117	-109	-142
종사 지위	상용직	27	165	549	-25	-309
	임시직	151	105	-72	-98	-148
	일용직	26	28	-29	-26	-16
업종	제조업	12	39	64	-50	-125
	건설업	11	12	46	-18	-42
	도소매업	2	36	71	-19	-103
	숙박 및 음식점업	44	51	9	-6	-35
	공공행정	33	8	-47	-3	-19
	보건사회복지	49	67	105	-29	-20
	나머지 업종	53	86	201	-24	-129
연령	20대	56	35	83	-78	-55
	30대	15	26	91	-42	-131
	40대	18	44	74	-44	-148
	50대	16	85	133	12	-85
	60대	21	79	68	9	-41
	70세 이상	71	30	5	1	-10

주 : 2019년 1~5월 평균(2018년 6월 지방선거 실시로 6월은 관련 분석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장년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주 15~35시간 일한 근로자는 30만 명 증가했는데, 50대와 60대의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어 장년층 여성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전년동기대비 20만 명 증가해 큰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20대 재학생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 부담 절감차원에서 사회보험료 면제와 주휴 면제 기준이 되는 주 15시간 미만 고용이 증가하는 측면과 정부 일자리 확대 영향의 결과로 풀이된다.

6. 제조업 고용 감소 지속

제조업은 사무직, 생산직 모두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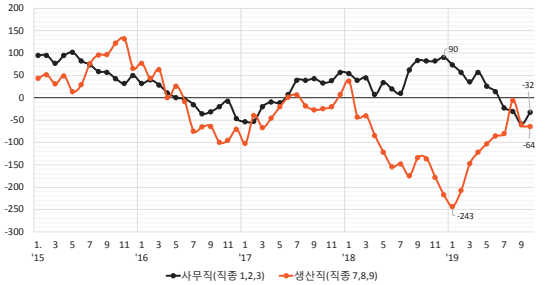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93천 명 감소했으며, 임시직(-54천 명), 20대(-63천 명), 40대(-63천 명) 그리고 생산관련 직업군[1](-112천 명) 중심으로 감소했다. 부진한 제조업 생산(전년동기대비 1분기 -2.1%, 2분기 -0.8%, 3분기 -0.7%) 영향으로 생산관련 직업군(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에서 특히 고용 감소가 컸다. 화이트칼라 직업군[2] 고용은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2천 명 증가해 생산관련 직업군과 달리 양호해 R&D, 마케팅 등 본사기능은 활발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2019년 3분기부터는 감소로 전환(3분기 -37천 명)되면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모두가 좋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 생산 흐름 등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 포함)은 생산 및 출하가 연내 증가 중이며 수주상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도 서서히 회복세가 관찰되고 있다. 자동차는 수출(수출액 기준 6.8% 증가)이 비교적 양호하나, 완성차 업계의 생산(1~10월 전년동기대비

1) 생산관련 직업군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8), 단순노무종사자(9)가 포함됨.
2) 화이트칼라 직업군에는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사무종사자(3)가 포함됨.

[그림 5] 제조업 전체 사무직 및 생산직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0.4% 감소)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고용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장비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반도체 포함)은 해외 직접투자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활발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 부품 등의 국내 생산이 감소세에 있어 고용 또한 둔화된 모습이다. 제조업 내에서 고용비중이 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기계류 투자(1분기 –20.9%, 2분기 –9.2%, 3분기 –3.6%),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수주(1분기 –8.9%, 2분기 –10.2%, 3분기 –19.3%) 모두 감소 국면에 있어 고용도 감소하는 모습이다.

7. 서비스업 고용 개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0천 명)에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87천 명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임시직 취업자가 46천 명 늘었고, 이들 대부분의 취업시간이 15시간 미만(36천 명)이었다. 직업별로 돌봄 및 보건 관련직이 포함된 서비스종사자(73천 명)와 청소 및 경비가 포함된 단순노무종사자(29천 명)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기존 보건복지서비스 수요의 추세적 증가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영향이 더해져 이 산업의 취업자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상반기에 57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의 종사자 수 증가도 꾸준히 3만 명대,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4만~5만 명대 증가를 유지 중이다. 최근에는 규모별로 300인 이상(3분기 51천 명), 사무종사자(45천 명)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본사, 회계법무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서비스업 종사자 수 증가(사업체노동력조사 3분기 18천 명)와 피보험자 증가(3분기 18천 명)도 관찰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업(32천 명)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이 1분기 7.3%, 2분기 3.7%, 3분기 2.1%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1~10월 19천 명),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2019년 상반기 26천 명) 증가도 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55천 명 증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지만 2019년 2월 증가로 전환한 후부터 최근까지 증가폭(3분기 95천 명)을 늘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1~10월 평균 취업자 감소(-45천 명) 기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산(1분기 11.5%, 2분기 10.3%, 3분기 5.5%) 외에 업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계정상의 가계 음식·숙박 관련 최종소비지출[3]이 2018년 4분기(7,890억 원)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고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도 나쁘지 않은 점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종사상지위별로 상용직(59천 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7천 명)가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4천 명)와 무급가족종사자(-11천 명)는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1-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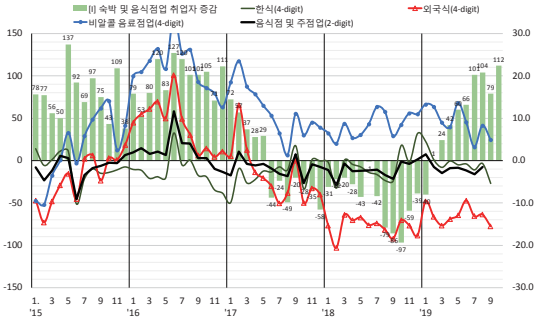
조선은 양호하나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는 부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양적인 개선을 이루었으나 단시간 근로 위주였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그림 6]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및 음식점·주점업 생산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3) 실질, 원계열, 2015년 기준년.

미만 사업장 취업자가 2018년 1~10월 28천 명 감소에서 2019년 1~10월 47천 명 증가로 개선되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증가 상당부분이 단시간 근로[4]에 해당한다는 한계도 있다.

도소매업은 소매업 위주의 고용 부진

도소매업 취업자(-54천 명)는 2018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상용직이 꾸준히 증가(88천 명)한 반면, 임시직(-92천 명), 자영업자(-2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21천 명)는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면세점(3분기 31.7%), 무점포 소매(3분기 16.6%)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며, 편의점(1분기 5.1%, 2분기 3.8%, 3분기 4.7%)에서는 기존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전체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오프라인 소매는 기존 둔화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 고용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세점,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도소매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술·스포츠, 가구내 고용활동 등 비중이 크지 않았던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

2019년에는 그동안 서비스업 내에서 고용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산업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3천 명), 가구내 고용활동(21천 명)에서는 최근 들어 취업자 증가폭(3분기 각각 74천 명, 41천 명)이 더 커졌다. 특히 가구내 고용활동 취업자는 2007년(23천 명) 이후 감소세에 있었기 때문에 2019년 취업자 증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두 산업의 취업자 증가는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최근 인력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가사서비스 관련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의 반영일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3〉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7년 1~10월	2018년 1~10월	2019년 1~10월
서비스업	232	46	326
도매 및 소매업	45	-73	-54
운수 및 창고업	-26	1	17
숙박 및 음식점업	6	-45	55
정보통신업	4	48	32
금융 및 보험업	-11	51	-42
부동산업	62	-15	29
전문·과학 및 기술	-8	3	57
사업시설관리 등	-17	-58	-9
공공행정·국방	49	59	-35
교육서비스업	57	-65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63	118	160
예술·스포츠	23	19	43
협회 및 단체, 수리	-6	13	2
가구내 고용활동	-7	-16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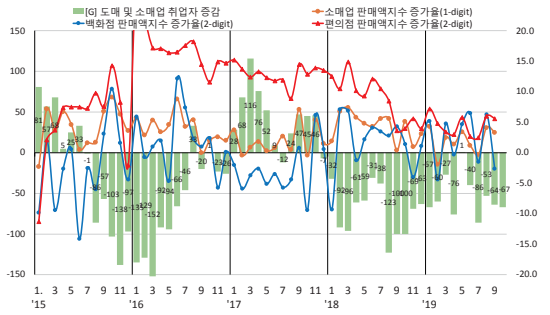
8. 건설업 취업자 둔화

동반 침체 중인 건설경기와 고용

건설경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수주[5]가 2017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둔화 흐름(2019년 1분기 -4.2%, 2분기 -2.3%, 3분기 -3.9%)에 있고, 건설기성(불변)이 2018년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2019년 1분기 -9.5%, 2분기 -6.4%, 3분기 -7.6%)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 국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고용 역시 2017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9월 -39천 명, 10월 -51천 명)를 더하고 있다. 2020년에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6]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업 업황 부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및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4) 일시휴직자를 제외하고 주된 일(주업)의 실제 취업시간 기준 2019년 1~10월 15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45천 명 증가.

5) 경상수주 총액 기준.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건설수주 6.8%, 건설투자 2.5% 감소 전망.
한국은행은 2020년 건설투자 2.3% 감소 전망.

III.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고용전망

2019년 노동시장은 경기둔화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2018년의 완연한 둔화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총량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저효과와 올해 초부터 나타난 인구 증가세에 힘입은 측면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노인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연령대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된 특징이 있다.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되었다. 다만, 30~50대 고용이 남성 중심으로 여전히 둔화 흐름에 있는 점, 경기후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약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한 단시간 근로 위주의 고용 증가가 나타난 점은 올해 노동시장을 양적으로 평가할 때 한계로 남는다.

양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30~50대 남성 고용둔화와 단시간 근로 위주 고용 증가라는 한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제조업 생산과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조선업 경기가 서서히 회복 흐름에 있으나 이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주요 산업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거나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제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생산둔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내년에도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7]이 나오고 있으며,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의 성장세 향방, 일본 무역제재, GVC(Global Value Chain) 재편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 고용은 2019년 초 취업자 감소 기저영향으로 2020년 일부 수치상의 개선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회복세 실현에는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용 회복세 실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

사회서비스 분야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 중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저의 영향으로 특별한 산업적 변화가 없다면 큰 고용성장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고용탄력성이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인구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수요증가와 일자리사업 확대시행이 이 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2020년에도 어느 정도 고용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의 서비스업 고용 증가 예상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금융위기 이래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성장을 이끌었던 업태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경기둔화로 인해 이들 전통 내수서비스 산업의 큰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통관련 업종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기존 오프라인 업태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시장을 옮겨가면서 관련 고용[8]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2인 가구 비중 증가, 개인 만족을 우선하는 소비패턴 확산,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 산업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변화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한국은행(2.3%), KDI(2.3%)를 비롯해 OECD(2.3%), IMF(2.2%) 등 국내외 여러 전망 기관들이 내년에는 경기가 부진했던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2020년 하반기 이후로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위와 같은 부문별 상황과 경기전망을 고려한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고용을 전망하면, 2020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207천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연간 0.1%p 증가, 실업률은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3분기에 크게 증가했던 취업자 증가폭(367천 명)의 기저효과와 본격화될 15~64세 인구 감소 및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둔화의 영향,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개선세 지속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인구는 2018년 15~64세 약 6만 명 감소보다

7) 산업연구원(2019.12), 「20120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8)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종합소매업(-2천 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4천 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7천 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소매업(-16천 명).

내년 취업자 207천 명 증가, 고용률 0.1%p 증가, 실업률 0.1%p 감소 전망

훨씬 큰 감소가 예상되고(장기인구추계 중위기준상 약 –20만 명 내외), 15세 이상 인구도 증가폭이 올해보다 약 10만 명 이상 작을 가능성도 있어(장기인구추계 중위기준 약 20만 명, 고위기준 약 25만 명 증가) 이번 전망의 주요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인구시현치가 실제 이와 같다면, 노동시장 흐름 자체는 경기요인 때문에 좋지 않으나 정책 대응과 기저변동 등에 힘입어 총량은 컸던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노동시장 여건도 다소 나아지나 인구요인 때문에 총량은 2019년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변화는 향후에도 고용의 총량적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지표 해석에 있어 인구효과로 인한 착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고용지표 해석에 있어 달라지는 인구 효과에 의한 착시 주의 요망

2020년의 경기 개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자리 예산 확대는 노동시장의 회복을 도울 중요한 요소로 여전히 자리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안[9]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25.8조 원, +4.5조 원) 가운데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이 주로 증액(2조 9,241억 원, +8,462억 원)되었다. 그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2019년 61만 개(추경예산 통과 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13만 개 증가할 예정이다.

25~29세 고용률은 다소간의 등락은 있으나 2018년 이래 대체로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로 공무원 임용시험, 대기업 입사시험 등 시험을 통해 구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의 신규채용이 활발해질 만한 산업적 호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나 규모가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2020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 상반기에 이어 40대 고용둔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취약한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둔화된 모습이다. 3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여성에 한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남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로 인해 감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기술교육 및 훈련을 장려하고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경기둔화와 정부 일자리 정책 및 주 52시간 상한제 영향으로 장시간 근로가 줄고 단시간 근로 중심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OECD 주요국 수준에 못미치는 시간제 비중을 감안하면, 은퇴연령대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노동공급 변화가 맞물린 측면도 존재한다. 기존에 일반적이었던 근로시간체계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일생활 양립 차원에서 지속되기 어려운만큼 작금의 변화가 단시간 근로의 사회적 보호 논의로도 이어지길 바란다.

〈표 4〉 2020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 천 명)

	2019			2020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1.9	2.1	2.0	2.2	2.3	2.3
15세 이상 인구	44,418	44,576	44,497	44,690	44,819	44,754
경제활동인구	28,067	28,243	28,155	28,272	28,438	28,355
경제활동참가율	63.2	63.4	63.3	63.3	63.5	63.4
취업자	26,858	27,315	27,087	27,106	27,481	27,294
(증가율)	0.8	1.2	1.0	0.9	0.6	0.8
(증감수)	207	322	265	248	165	207
실업자	1,209	927	1,068	1,165	958	1,062
실업률	4.3	3.3	3.8	4.1	3.4	3.7
고용률	60.5	61.3	60.9	60.7	61.3	61.0
비경제활동인구	16,351	16,333	16,342	16,418	16,381	16,399

주 :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2019.11), 「경제전망보고서」.

9) 2019년 8월 기준 정부안.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